

## 미국 휴대폰 벨소리 시장 ‘고공비행’

### 음악 다운로드 · 뮤직비디오 등 부가서비스도 ‘상승세’

**미**이동통신사들의 다양한 휴대폰 벨소리 제공 노력에 힘입어 미국 음악업계의 모바일 서비스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곡가, 작사가 및 음반업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BMI는 최근 미 음악업계의 지난 5년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출 규모가 가장 높았던 2004년에 총 336억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휴대폰 벨소리 매출은 지난해 2억1,700만 달러에서 올해에는 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휴대폰 벨소리 시장의 성장세를 반영하듯 베리사인은 지난해 6월 유럽의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잡바(Jamba)’를 2억7,30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휴대폰 벨소리 시장에 전격 진출했고, 인터넷 검색업체로 잘 알려진 인포스페이스도 2003년 10월 ‘모비소(Moviso)’를 2,500만 달러에 인수하며 벨소리 다운로드 사업을 시작, 올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벨소리 시장이 모바일 콘텐츠 사

업 부문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능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휴대폰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에는 휴대폰에서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와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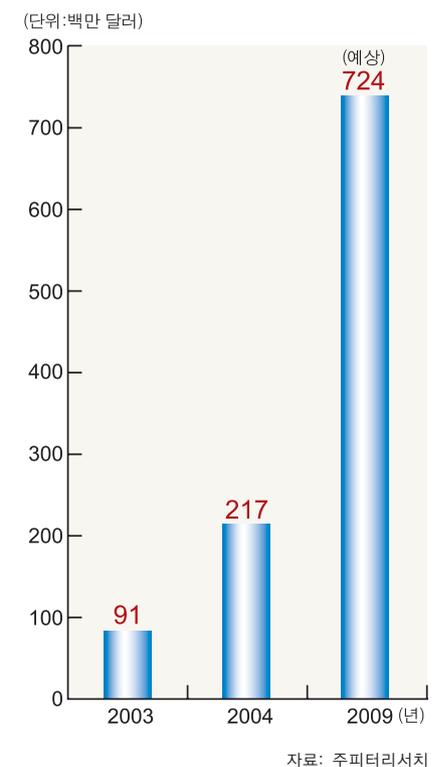
이에 미 이동통신사들은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애플사의 iTunes를 대체하거나 iTunes와 호환이 가능한 휴대폰을 공급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모토로라의 경우, 이달 중으로 E790 iTunes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휴대폰 부가서비스가 크게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벨소리와 음악 등 다양하고 고급화된 아이템들이 사용자들의 기호를 충족시켜주고 있고, 사용자들 역시 이러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돈을 지불할

의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그림〉 미국 벨소리 매출 추이



#### 다날 | 휴대폰 벨소리로 인도네시아 진출

다날은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원음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다날은 인도네시아 현지 음원 유통사인 플러스와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원음 벨소리 MCP 시스템 구축 및 향후 5년간 독점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플러스사는 인도네시아 제1위 음반사인 뮤지카 그룹의 자회사다. 이번 계약으로 플러스사는 인도네시아 로컬 가요 및 팝송 등의 음원을 공급하고, 다날은 텔콤셀 · 텔콤플렉스 · 엑셀콤 · 인도샷 등 인도네시아 4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원음 벨소리 서비스를 시스템 구축 ·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날은 플러스사의 음원 이용 과금의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배분 받게 된다.

정훈진 다날 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은 “인도네시아 휴대폰 원음 벨소리 시장이 연간 150억원 규모로 이번 계약으로 다날은 2006년 약 29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인도네시아 원음 벨소리 시장은 전체 벨소리 시장의 5%(다운로드 건수 기준)이지만 향후 단말기 기능 확대에 따라 원음 벨소리 시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날의 수익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날은 이번 계약에 앞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개발 인력을 파견, 이미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날은 조만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도 설립할 예정이다.